


마음 열기

 '찬송가 210장',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을 함께 부르시다.

 연초에 계획했거나 다짐했던 것들을 잘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말씀 나누기 에베소서 2장 19-22절, "함께 지어져 가자"

 우리는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19절).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동일한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19절)**. 하지만 세상의 조건들과 사람의 생각, 형편들은 우리를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되지 못하면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결국 흔들리며 무너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엡4:3).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성전이 함께 지어지면, 그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역사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20-22절).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20절a)**.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터로 삼으라는 것은, 말씀을 삶의 기준과 해결 방안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터로 삼고 그 위에 온전한 성전을 지어갈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통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잇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20b-21절). 예수님은 부활함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모퉁잇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견고한 터

위에 견고한 모퉁잇돌을 놓아야 건물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위에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성전을 지으면 그 안에서 연결이 되어 더 큰 성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21절). **예수님을 모퉁잇돌로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성전을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으면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저절로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되고(갈5:6),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이며(골3:14), 율법과 말씀의 완성입니다(롬13:10).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삼고 자라날 때(엡4:15), 사랑으로 연결되어 온전한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22절).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면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 말씀은 올해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전한 성전을 지어져 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으로써 하나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터 위에 사랑의 모퉁잇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 때에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 내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면서 온전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1.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관계나 상황이 회복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2.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간단히 나눠주세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온전한 성전을 지어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2. 남은 한 해 동안 온전한 성전을 함께 지어가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 '마음열기' 악보 -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C G7 Am7 Dm7 Gsus4

아 침 안 개 눈 앞 가 리 듯 나의 약 한 믿 음 의 심 쌓 일 때
빛 줄 기 에 바 위 패 이 듯 나의 작 은 소 망 사 라 져 갈 때

5 G7 Em7 Am7 1. Dm7 D7 3 Gsus4 G7

부 드 럽 게 다 가 온 주 의 음 성 아무 것도 염 려 하 지 마 라
고 요 하 게 들 리 는 주 의 음 성 내가

10 2. Dm7 G7 C C7 F G7 C C7

너 를 사 랑 하 노 라 외 로 움 과 방 황 속 에 서

14 Dm7 G7 C C#dim Dm7 G7

주 님 앞 에 나 아 갈 때 에 위 로 하 시 는 주 님

17 Em7 Am7 D7 Gsus4 G7

나 를 도 우 사 상한 나 의 마 음 감 싸 주 시 네

20 C Em7 F Gsus4 G7

십 자가 의 보 험 로 써 주의 크 신 사 랑 알 게 하 셧 네

24 C Em7 Dm7 G7 C

주 님 께 감 사 하 리 라 언 제 나 주 님 께 감 사 해

FAMILY 나눔

2024년 10월 6일

함께 지어져 가자

에베소서 2장 19-22절

